

영세어업인 위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군산시, 2월 20일까지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군산시는 영세어업인을 보호하고 위해 2월 20일까지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장비를 지원하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소형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장비 지원을 통해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어업의 구조 개선 및 선진화를 위해 추진된다.

시는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을 위한 국비보조 총 사업비 150백만원을 확보하여 초단과대 무선전화(VHF-DSC) 30대, 자동소화시스템 4대, 팽창식 구

명조기 186벌, 선박자동임출항 단말기(V-Pass) 65대 등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자는 5톤 미만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으로, 팽창식 구명조기 및 선박자동임출항 단말기는 10톤 미만 연안어선 소유 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희망지는 시 해양수산과에 내달 20일까지 직접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다만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위반 자 또는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어선검사

중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어업인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자별로 수협중앙회 공동구매 단가계약이 체결된 장비를 신청하면 장비비조달(수 발주, 검수, 대금정산, 세무, 제품 사후관리 등) 보조업무를 수행해 어선에 설치가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 설비는 5년간 매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처분 제한기준에 따라 사후관리를 받

으면 된다.

이성원 해양수산과장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어선사고는 사망·실종자 발생 등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대형사고가 많다"며 "어업인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영세어업인의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초단과대 무선전화(VHF-DSC) 204대, 팽창식 구명조기 711벌, 선박자동임출항 단말기(V-Pass) 81대 등 어선에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갖춰야 하는 안전장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시, 홀로그램 콘텐츠 선도

익산시가 홀로그램 콘텐츠 선도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행정력을 결집한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디지털 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이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구축에 나선다.

'디지털 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은 국비와 시비 등 총 사업비 4000억원이 투입되는 익산시의 역점 추진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를 옛 미동주민센터에 조성한다.

이 센터는 홀로그램 서비스 인증과 표준화, 실증 생태계 조성 등의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또 홀로그램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

구축, 홀로그램 기술집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 지원 활동을 통해 기업 생태계의 변화를 도모한다.

특히 콘텐츠 활용인력 교육과 장비·소프트웨어의 활용지원, 콘텐츠 품질 평가, 활용 분야별 인증 지원을 통해 익산을 홀로그램 선도지역으로 조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센터는 국비와 시비 등 총 300억원이 투입돼 오는 2023년 구축이 완료된다.

시는 센터 구축을 위해 이달 중 전 북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20년 12월까지 미동주민센터에 대한 구조 변경을 마무리하고 지원사업을 전개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는 향후 진행될 '디지털 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성된다"며 "이 센터에서는 각종 체험과 교육, 기업지원 활동을 펼쳐지게 되며 익산이 홀로그램의 선도지역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익산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세무조사

익산시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인 관리를 행사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번 세무조사는 최초 과점주주가 됐거나 주식 지분비율이 변동한 74개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진행된다.

이를 통해 과소신고 및 미신고세액은 2% 세율을 기초로 가산세를 추가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금전적 불이익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회원권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과점주주 성립일로부터 60일 안에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재산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자진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매년 1분기에 과점주주 일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관내 비상장법인 864곳 중 66개 법원에서 1억7020만원을 추징했다.

/김재훈 기자

지역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군산 말랭이 마을 각광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침체된 도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산 편빌리지협동조합은 지난해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신흥동 말랭이마을 일원에서 전시회를 기획했다.

1월 1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미술 공간 채움의 작가들 비롯한 다양한 작가들이 신흥동 고지대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한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마을영커장소는 마을 주민들이 잘 알고 있고, 자주 모이는 장소, 그러면서도 외지의 방문자가 마을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둘러보는 마을의 대문 역할을 할 장소에 조형물과 벽화, 마을 평상과 마을 지도 등을 배치했다. 또한 말랭이마을 기록 작업은 미술과 트 작업 및 주민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사진과 영상에 담아 기록하는 작업이다. 유기종(사진), 이가령(다큐멘터리) 작가가 참여했으며 사진 작업



군산 편빌리지협동조합은 신흥동 말랭이마을 일원에서 기획했다

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정수사진 촬영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마을이야기책 '신흥동 사람들' 공동 작업은 홍성미 작가가 <신흥동 사람들>(글 배지영)의 그림을 맡아 작업했다.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군산 말랭이마을이 공동화 된 도심 지역의 일반적인 현상인 물리적인 노후화와 인구 감소 및 고령

화로 인해 침체된 도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 군산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에서 주관하는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으로 2018년 2월에 선정되어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원도심게스트하우스를 중심으로 구성된 편빌리지협동조합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대 이승태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상



군산대학교 토목공학과 이승태 교수가 건설교통기술발전과 지역 기업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군산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토교통 기술혁신연구사업, 교통물류연구사업 등 각종 R&D 연구 사업에서 콘크리트 성능향상, 도로포장 신공법 개발 등 우수한 연구 성과를 도출했고,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등을 통하여 학생 역량강화 및 기업매출신장에도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 국토교통부 'Eco-Mobility 기획연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 평가위원', 한국도로교통협회 '도로교통표준시방서 자문위원', 한국연구재단 'R&D 평가위원' 등 각종 정부 및 지자체 위원활동을 다양하게 해왔고 국토

교통부 제 6.7.8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술심사 평가위원 등 대외 활동도 다양하게 해왔다.

한편 이승태 교수는 2010년 한국콘크리트학회 우수논문상, 2008년 및 2011년 군산대학교 올해의 공대인상, 2015년 대한토목학회 전북지회 공로상, 2014년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도로학회,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대한토목학회 등 각종 학회 위원회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지역 농가 쌀 생산 조정제 적극 지원

군산시는 2019년도에도 정부가 추진하는 타(他)작물 재배(쌀 생산 조정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쌀 생산 조정제'는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받는 농지에 벼 이외의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면적당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올해 군산시의 계획면적은 890ha로, ha당 평균 340만원(국비 80%, 지방비 20%)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30억 5,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올해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1000㎡이상)할 의향

이 있는 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법인이며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에는 휴경을 해도 타작물 보조금이 지급된다. 사업 희망지는 오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마을 대표의 확인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별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논 타작물 전환 시 쌀 소득 고정직불금은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쌀값 변동에 따라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며 "시에서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 지급률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시, 지역 생산 가공용 쌀 CJ에 1만2천t 공급

익산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공용 쌀을 CJ에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가 올해 업체에 공급하는 원료곡은 1만2000t이다. 이는 지난해 업체에 공급한 1만보다 20% 증가한 양이다.

업체와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공급량을 확대하게 됐다. 시는 이번 공급 확장에 따라 지역 1000여명의 농가가 참여하는 1400ha 규모의 단지 조성한다. 아울러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84의

보급장자를 오는 4월 중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땅심을 높이기 위해 볏짚환원을 실시하고 민간합동으로 구성된 포장심사단을 운영하는 등 고품질 원료곡이 생산될 수 있도록 주력할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는 주식시장의 원료곡 선점을 통해 익산 쌀 소비촉진에 기여하고 성공적인 단지 조성, 기업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로 쌀 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 이종호 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 이광원 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